

■ 연구원 소식

○ 2015년 회원의 날 안내

- 날짜 : 2015년 08월 22일(토) ~ 23일(일)
 - 장소 : 행사(전주대학교 일원), 숙박(초남이 성지)
 - 행사일정 :
 - <8월 22일(1일차)>
 - 14:00 ~ 14:30 준비 및 등록(방명록 작성, 이름표 배부 등)
 - 14:30 ~ 15:00 인사말(이사장, 원장), 연구원 현황보고
 - 15:00 ~ 16:00 글로컬 휴머니티 소사이어티(GHS) 강좌
 - 16:00 ~ 17:00 천연 방충제 만들기 체험
 - 17:00 ~ 17:40 레크리에이션(OX퀴즈)
 - 17:40 ~ 18:30 초남이 성지 이동 및 도착
 - 18:30 ~ 19:00 초남이 성지 소개
 - 19:00 ~ 21:00 저녁식사 / 경매
 - 21:00 ~ 자유시간
 - <8월 23일(2일차)>
 - 08:00 ~ 09:00 아침식사
 - 09:00 ~ 11:00 순례길 체험
 - 숙박 장소는 초남이 성지 교리당입니다.
 - 가족단위 캠핑 텐트도 설치될 예정이오니 이용신청 바랍니다.
 - 개인 세면도구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애장품 경매에 참가하실 분들은 연구원에서 연락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연구원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한지산업관)
※ 초남이 성지 주소 : 전북 완주군 이서면 초남신기길 128-5

○ **해방 70주년, 한일회담 50주년 맞이 글로컬 휴머니티 소사이어티 기념행사 참석**

- 날짜 : 2015년 8월 14일(금) ~ 15일(토)
- 장소 : (사)한국고전문화연구원 부설 보라매 글로컬 아카데미(2층, 5층)
- 내용
 1. 미래를 향한 동아시아의 평화와 인권
 - 강사 : 이규수(고려대) / 일시 : 2015년 8월 14일(금) 15:30~17:30
 - 장소 : (사) 한국고전문화연구원 부설 보라매 글로컬 아카데미(2층)
 2. 일본군 '위안부' - 망각에 대한 저항 미래의 책임
 - 강사 : 한혜인(한국여성인권진흥원) / 일시 : 2015년 8월 15일(토) 10:00~12:00
 - 장소 : (사) 한국고전문화연구원 부설 보라매 글로컬 아카데미(2층)
 3. 기념공연 및 낭독회
 - 배우 : 아리마 리에(有馬理恵) / 일시 : 2015년 8월 15일(토) 14:00~16:00
 - 장소 : (사) 한국고전문화연구원 부설 보라매 글로컬 아카데미(5층)
 - 주제 : 나의 평화를 향한 몸부림

: 해방 70주년, 한일회담 50주년을 맞이하여, 위와 같이 한국고전문화연구원 부설 연구소 GHS(글로컬 휴머니티 소사이어티)에서 14일, 15일 양일에 걸쳐 기념강연 및 기념공연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반전과 평화를 기원하는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이 함께하여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 금주 연구원 주요일정

- 08월 17일(월) : 선비관 개관 준비작업
- 08월 19일(수) : 주간회의(회원의 날 최종점검), 독도강의(전주 한일고)
- 08월 22일(토) : 회원의 날 1일차
- 08월 23일(일) : 회원의 날 2일차

■ 역사속의 오늘

○ 돌베개 스러지다 - 1975. 8. 17

: 1975년 8월 17일 포천 약사봉에서 장준하는 의문의 죽음을 당한다. 민주주의 자체를 믹서로 갈아버리는 긴급조치라는 폭압 하에서 반격을 준비하던 '재야 대통령' 장준하는 경사 75도의 암벽을 장비도 없이 오르다가 '실족'하여 떨어져 죽는다. 귀 뒤에는 무언가 뾰족한 것으로 맞아서 함몰된 상처만 '우연히' 남긴 채.

오늘날 그는 대한민국에서 이른바 '좌파'로 불리우는 이들에 의해서 추앙을 받지만 기실 그는 열렬한 우파로 살았고 우파로 죽었다. 일본군에 학병으로 입대한 후 탈출하여 '야곱의 돌베개 베고 잠' 같은 고난을 무릅쓰고 광복군에 합류한 이후, 자신들을 포섭하려는 좌익 계열의 김원봉을 질타했으며, 치사하게 미인계를 쓰고 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장준하는 정말로 우리 '민족'을 사랑한 사람이었다. 투철한 민족주의자로서 계급 투쟁을 논하는 이들을 배격했고, 웬만한 허물은 동족으로서 함께 짊어져야 할 십자가로 여겼다. 그러나 그는 현재 권력을 쥔 이들의 불의를 용납할 만큼 녹록한 사람이 못되었다. 일본군 장교 출신의 집권자가 국정을 전횡하고, 공산독재에 맞서

싸워야 할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굴욕적 한일 회담을 추진하고, 기업의 밀수를 묵인하고, 그로부터 정치 자금을 받아 챙기는 세상을 눈 뜨고 보아줄 수 없는 광복군 장교였다. 결국 그는 진정한 우익이었기에 이 땅의 주류 우익과는 다른 길을 가게 된다.

일본군 장교 출신 대통령과 광복군 장교 장준하 사이가 좋을 리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장준하는 거침없는 필봉과 사심 없는 마음으로 박정희의 철권에 맞섰다. 아들의 증언에 따르면 “박정희를 깨기 위해 게릴라전까지 불사하겠다.”고 했으며, 항상 몽둥이를 차에 두고 다니다가 미행하는 차량이 있으면 몽둥이를 들고 뛰어나가 미행자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담대한 재야 인사 장준하는 박정희 정권의 눈에 가시가 아니라 목구멍에 꽂힌 창날이었을 것이다.

1975년 8월 17일. 폭염이 가시지 않던 그날, 그는 등산을 나섰고 끝내 상봉동 집에 살아서 돌아오지 못한다. 그 죽음의 내막은 여전히 귀신도 모른다.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를 이룩하기 위하여, 자손만대에 누를 끼치는 못난 조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지성일관 용왕매진하자,”

그의 묘비에 있는 글이고, 살아 있을 때 그가 남긴 말이다.

○ 청년 노동자의 죽음 - 1988. 8. 22

: 87년 노동자 대투쟁은 1987년 6월 항쟁의 꼬리를 물고 한반도를 뒤덮었다. 경향 각지에서 노동조합의 깃발이 그때처럼 힘차게 펄럭인 적은 아마 1946년 9월의 전평(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 총파업 이후 처음이었을 것이다.

1987년 8월 8일 삼북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날, 대우조선노동조합이 결성되었다. 회사 측의 방해 공작도 치열했고 노동자들 사이에서 반목도 있었다. 하지만 85년부터 임금이 하나도 오르지 않았고, 상시적인 해고의 공포에 질려 있던 대우조선 노동자들은 '대우 가족' 아닌 '대우 가족'으로서의 권리를 부르짖는다.

그러나 결국 8월 22일 사측과의 협의가 결렬된다. 현장수당 2만원과 가족 수당 1만원 신설이 조합의 요구였지만 회사 측은 매정하게 고개를 젓는다. 이에 노동자와 가족들은 당시 거제도 현지에 내려와 있던 김우중 회장을 직접 만나겠다고 물러간다. 경찰은 평화적으로 시위하면 길을 터준다 약속했고 그 말을 정말 철석같이 믿은 노동자들은 오리걸음으로 행진했다.

불볕 더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던 그 날, 시커멓게 타버린 얼굴의 노동자들이 머리에 손을 얹고 "회장님을 만나기 위해" 머리에 손을 얹고 킁킁대며 기어 가던 모습을 상상하면 절로 가슴이 아려온다. 그러나 정작 김우중 회장이 머물던 호텔 앞에 이르자 경찰들이 약속을 깨고 갑자기 최루탄을 발사하며 진압을 시작한다. 그 아비규환이 잠잠해질 무렵 노동자 한명이 경찰의 직격 최루탄에 맞아 절명한 채 발견된다.

이석규. 고향 남원에서 중학교를 마치고 직업훈련원을 거쳐 병역의 의무를 위해 방위산업체인 대우 조선에 와서 4년 동안 억척스럽게 일한 푸르디 푸른 청년. 그는 회장님 얼굴 좀 뵙자고 외치면서 찌는 태양 아래 오리걸음으로 걷다가 숨지고 말았다. 진압하던 경찰이 직격으로 쏜 최루탄을 가슴에 맞은 채...

그 죽음은 여러 파장을 불러 왔다. 동료의 죽음 앞에서 노동자들은 격분했고 완강히 버티던 사측도 한발짝 물러설 수 밖에 없었다. 마침내 8월 27일 임금협상이 타결됐고, 28일 장례식이 결정됐다. 장례식 당일 광주 망월동 묘역으로 향하던 영구차는 경찰의 습격을 받는다. 그리고 고인의 시신은 탈취되어 고향 땅에 묻히게 된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당연한 기본권들이 87년 이석규를 비롯한 선배들이 머리가 깨지고 목숨을 잃으며 싸워서 심은 나무의 열매임을 기억하고 있을까? 그렇다면 '동일노동 차별임금'을 감수하며 고용불안정에 시달리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해 어떤 자세를 취해야할 지 자명해질 것이다.